

女축구, U-17 아시안컵 첫 경기 대승…북한도 대만 10-0 대파(종합)

등록 2026.05.02 22:29:33



SAT, 02 MAY, 2026

#U17WAC - Group C: Korea Republic 5-0 Philippines

[서울=뉴시스] 필리핀에 5-0 대승을 거둔 한국 여자 17세 이하(U-17) 대표팀 선수단. (사진=AFC 홈페이지 캡처)
2026.05.0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한국 여자 17세 이하(U-17)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 U-17 여자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다.

이다영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5-0 대승을 거뒀다.

백서영(경남로봇고)이 홀로 4골을 터트리며 대승에 큰 공을 세웠다.

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한 백서영은 전반 14분과 전반 34분에 일찌감치 해트트릭을 완성했다.

그리고 후반 10분 4골로 팀에 4-0 리드를 안겼다.

흐름을 탄 한국은 후반 22분에 나온 김희나(울산현대고)의 추가골을 더해 5점 차 대승을 맞았다.

한국이 이날 33개의 슈팅(유효 슈팅 17개)을 기록하는 사이, 필리핀은 슈팅 2개(유효 슈팅 0개)에 그쳤다.

한국은 지난 2009년 이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한 바 있다.

최근 열린 2024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선 3위를 기록했다.

이다영호는 오는 5일 같은 장소에서 대만을 상대한 뒤, 8일 북한과 격돌한다.

북한은 디펜딩 챔피언이자 통산 4회 우승국인 강호다.

북한 역시 이날 진행된 대만과의 대회 첫 경기에서 무려 10-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.

'간판선수' 유종향은 홀로 5골을 터트리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.

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4개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소화한다.

이후 각 조 1, 2위와 6개 팀 중 성적이 좋은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펼친다.

준결승에 오르는 4개 팀은 오는 10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(FIFA) U-17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얻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